

지리와 기후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있는 나라

지리

태평양의 섬나라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인 일본은 아시아 대륙 쪽으로 활 모양으로 펼쳐진 섬나라이다. 섬은 크게 (크기대로)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의 4개의 주요 섬과 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태평양은 일본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는 동중국해와 일본해가 있다.

위도상으로 일본은 지중해와 북아메리카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위도상에 위치해 있다. 파리 와 런던은 홋카이도의 북쪽 끝보다 위도상으로 위에 있다.

일본의 총 면적은 378,000 평방 킬로미터이다. 이 크기는 독일, 핀란드, 베트남 혹은 말레이시아와 거의 같은 크기이다. 하지만, 미국의 1/25 크기이며 캘리포니아주보다도 작다.

일본의 해안선은 상당히 다양하다. 지바현의 구즈쿠리하마와 같은 몇몇 지역에는 거의 일직선으로 60킬로미터에 걸쳐 연속적으로 펼쳐진 모래 해변이 있으며 나가사키현의 해안은 반도와 해협, 해안 근처의 많은 섬들(이를테면, 같은 현에 있는 고토 열도와 츠시마와 이키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지구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옛날 해안의 일부가 가라앉으면서 형성된 많은 해협과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기복이 심한 해안지역도 있다.



구로시오 해류(또는 일본 해류)라고 알려진 따뜻한 해류가 일본 열도의 남부지역을 따라 북동쪽으로 흐르며 쓰시마 해류라고 불리는 지류는 일본의 서쪽 면을 따라 일본해 쪽으로 흐른다. 북쪽으로부터는 지시마 해류라고 불리는 차가운 해류가 일본의 동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며 그 해류의 지류인 리만 해류는 북쪽으로부터 일본해로 흘러 들어간다. 일본의 인근 바다에는 이러한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가 만나면서 엄청난 어류 자원이 형성된다.

화산과 지진이 많은 나라

일본 면적의 3/4은 산지이다. 혼슈 중부의 주부지역은 ‘일본의 지붕’으로 불리며 3,000미터 이상의 많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의 경계에 있는 후지산(3,776미터)이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야마나시현에 있는 3,193미터의 기타타케산이며 세 번째로 높은 산은 나가노현과 기후현의 경계에 위치한 3,190미터의 오쿠호타카다케산 및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의 경계에 위치한 3,190미터의 아이노다케산이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몇 개의-보통 7개로 알려져 있는-화산지대가 있다. 일본에는 이즈 오시마섬의 미하라산과 나가노현과 군마현의 경계에 있는 아사마산 그리고 구마모토현의 아소산을 포함하여 총 110개의 활화산이 있다. 이는 전 세계 약 1,500개 활화산의 1/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 화산이 있는 장소는 전 세계 면적의 1/400에 불과하다.

화산은 엄청난 분출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지만 또한 막대한 관광자원을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니코, 하코네, 이즈반도 같은 관광지는 더운 봄과 화산의 매력적인 경치로 유명하다.

후지산

가와구치호수에서 바라보는 일본 최고봉 후지산(4월). 산정은 6월까지 눈으로 덮혀 있다.



이러한 모든 화산이 증명하였듯이 일본열도를 받치고 있는 지각은 불안정하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이다.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약 1,000회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1995년 1월에 한신-아와지대지진으로 인하여 6,0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약 40,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20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2004년 10월, 니가타현의 지진으로 6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4,8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다. 2011년 3월에는 태평양 연안의 산리쿠(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의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이 영향으로 최고 약 10미터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 지진과 쓰나미는 도호쿠지역에서 간토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해안을 강타했다. 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약 1만 8천여 명에 이른다.

급류가 흐르는 강물

산지가 많은 일본에는 강들도 많다. 대부분의 강은 아주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산의 계곡과 유역을 떠나면 오래지 않아 바다에 도달한다. 예를 들어, 강의 흐름이 '급격한' 구로베 강은 해발 2,900미터 이상인 일본 알프스의 수원으로부터 단지 85킬로미터를 흐른 후에 바로 바다에 도달한다.

일본에서 가장 긴 강은 시나노강으로 주부지역의 산으로부터 니가타현을 통과해 일본해에 도달하기까지 367킬로미터를 흐른다. 두 번째로 긴 강은 도네강인데 간토 고원을 흘러 태평양으로 간다. 세 번째로 긴 강은 홋카이도의 이시카리강으로 길이가 약 268킬로미터이다.

산지에서 흘러내려 오는 많은 강은 크고 작은 계곡과 유역을 만들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에는 부채꼴 모양의 삼각주를 만들어 일본의 지세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평야는 작다. 가장 큰 평야는 도치기, 이바라키,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및 가나가와현의 일부를 포함하는 간토평야이다. 그 밖에 다른 비교적 큰 평야로는 에치고평야(니가타현), 이시카리평야(홋카이도) 그리고 노비평야(아이치현 및 기후현)가 있다.

기후

일본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도변화이다. 일본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약 25도 정도의 광범위한 위도에 걸쳐있으며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여름에는 태평양에서 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비교적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

아북극 기후의 홋카이도는 연평균 기온이 9.45도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05밀리미터이다. 북부 혼슈의 도호쿠지역으로부터 규슈까지 일본의 태평양 쪽 지방은 온대기후 지역이며 여름에는 태평양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덥다. 일본해 쪽을 바라보는 지역은 습기가 많은 대륙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일본의 허리를 형성하는 중앙 알프스와 그 밖의 다른 산들을 만나면서 구름을 형성하여 비와 눈이 많다. 오키나와현의 남서쪽 섬은 아열대기후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이고 강수량도 2,000밀리미터 이상이다.

봄 (3월, 4월, 5월)

겨울이 거의 끝나가면, 대륙에서 불어오던 차가운 계절풍이 약해지고 간헐적으로 불어오게 된다. 이때 중국에서 발생 한 저기압의 공기가 일본해로 들어오게 된다. 이 저기압은 태평양으로부터 이 저기압 지역으로 이동하는 강하고 따뜻한 남쪽에서 오는 바람을 발생시킨다. 첫 번째로 부는 이 바람을 하루 이치방이라고 한다. 이 바람은 다가오는 봄의 따뜻함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일본해를 바라보는 지역으로 산들을 넘어가면서 눈사태를 야기하기도 하며 종종 이상 고온이나 건조기후를 발생시키거나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봄에는 매화가 피기 시작하고 이어서 복숭아꽃이 핀다. 3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벚꽃이 남부 일본부터 피기 시작하여 서서히 북쪽으로 퍼져 간다.

단풍
일본의 가을을
상징하는 단풍



여름 (6월, 7월, 8월)

한여름이 오기 전에 일본에는 쓰유라고 하는 우중충한 장마가 온다. 5월부터 6월까지, 오토츠크해를 넘어 일본 북부로 부는 차가운 고기압이 형성되며 태평양에서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고기압이 발달한다. 바이우 젠센, 즉 '장마전선'으로 알려진 이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전선을 따라 따뜻한 저기압 지역이 발달한다. 그리하여 지바 남쪽으로부터 일본 열도에 걸쳐 뻗어있는 바이우 젠센에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오게 된다.

7월 중순 이후에 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강해지면서 바이우 젠센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 장마는 끝나게 된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는 오랜 기간 동은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더운 여름이 계속되게 된다.



불꽃놀이
일본의 여름을 상징하는 풍물 불꽃놀이

가을 (9월, 10월, 11월)

늦여름부터 9월까지, 일본에는 종종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태풍은 북태평양의 위도 약 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형성된 거대한 열대저기압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과 동일한 현상이다. 태풍은 형성이 시작되며 점점 북쪽으로 이동한다. 매년 이 기간 동안 약 25개의 태풍이 발달하고 이중 약 4개는 일본에 상륙하여 심각한 재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10월 중순이나 말 이후에 일본은 보통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다. 특히 11월 초에는 날씨가 화창하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나무에 단풍이 들어 봄의 초록과 더불어 정말 아름다운 기간이다.

겨울 (12월, 1월, 2월)

11월 말경에는 대륙으로부터 일본 쪽으로 차가운 계절풍이 분다. 이 북서풍은 일본해에서 습기를 머금고 이동하면서 중앙 산맥의 동쪽 면을 만나면서 대부분의 습기가 일본서쪽지방에 비나 눈의 형태로 내리게 된다. 일본해를 바라보고 높은 산맥으로 다른 일본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호쿠리쿠지역(후쿠이, 이시카와, 도야마 및 니가타현)은 눈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겨울에 태평양 쪽 지역은 일반적으로 화창한 날씨를 즐긴다. 화창한 날씨로 인해 도쿄의 겨울 평균기온은 영상 5도 정도이며 여름의 30도 이상의 기온과는 25도 정도 차이가 난다.

멀리 떨어진 남서쪽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의 섬들은 계절별로 뚜렷한 온도변화가 별로 없는 아열대 기후지역이다. 겨울의 온도는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온화하다.



시라카와마을의 겨울풍경
기후현 시라카와 마을 정경이다. 농가의 '갓쇼즈쿠리'라는 특이한 건축 양식이 1995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되었다. (사진제공 : AFLO)

